

주일에배	오전(1부) 대방동	7시
	오전(2부)	7시
	오전(3부)	10시
	오후(4부)	3시
	수요일예배 (저녁)	8시30분
서울 교회 02)533-9191		
장소: 강서구 공항대로 376 KBS스포츠클드		



주일에배	오전(1부)	7시
	오전(2부)	10시
	오후(3부)	3시
	저녁예배	7시
	금요일예배 (저녁)	8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장소: 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대한예수교장로회 예수중심교회

2019년 9월 15일 (제1020호)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37호 Tel. 02)533-9191 Fax. 02)592-9191 (인천)인천시 서구 백범로 65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철야 주일 예배 위성 및 인터넷 생방송)



지킴이

시냇가 징검다리 모난 돌
흐르는 물살에 모난 곳 없어지니 매끄럽구나
그 자리 지킴에 얼마나 아꼈을까!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격려하는 일
그대로 자신의 감정을 받아들이며
자리를 잘 지키는 일은 매우 아름답다오
뭇사람 징검다리여!

물소리 자갈 노래에 또 다른 무언가를 작곡하며 얻을 수 있고
코독한 내 모습을 보며
새로운 날을 계획할 수도 있으니 행복하다오

다만!
너무 외롭고 쓸쓸할 때
기도하며 스스로 대견하다 칭찬하며 웃을 때가 가장 행복했다오
그날의 꿈을 바라보며
버티고 서 있는 내 모습 자체만으로
내 삶을 잘 살아가고 있다 박수를 쳐본다오

바닷가 피서객 떠난 자리
통기타 치며 수평선 바라보는 음식점 주인 모습이여!
성도 떠난 기도원 앞산 바라보는 내 모습이여!

기도원 지기여!
또다시 그날은 온다네
그 자리 잘 지키게나 만민의 징검다리여!

산상집회를 마치고
朋友 이초석 목사

봉 우 컬 럼

내가 존재하는 이유

나는 이 땅에 아무런 미련이 없다. 솔직히 내가 그토록 사모하는 천국에 가고 싶을 때가 많다. 그곳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 그럼에도 내가 이 땅에 가치를 두는 것은 아직도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 많기 때문이다.

나는 누가복음 12장 42절, “주께서 가라사대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요!”라고 큰 소리로 외친다. 이것이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이기 때문이다. 복음전파, 그것이 내가 이 땅을 사는 이유다.
주님은 말씀하셨다.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마28:18~20). 이는 주님이 주신 지상명령이요, 사명이다. 나는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 또 내게 주신 사명에 부도내지 않기 위해 그것을 쫓아 지금까지 달려왔다. 그리고 앞으로도 달려갈 것이다.
목적이 있는 삶, 멋지지 않은가! 뭔가 추구할 것이 있고, 달려갈 곳이 있다는 것은 가치 있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나는 자원하여 예수님의 노예로 산다. 그런 내가 세상 누구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

는 삶을 산다고 자부한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당신이 추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확실할 때 삶은 흔들리지 않는다. 내가 온갖 핍박에도 흔들리지 않은 것처럼. 또한 목적이 있을 때 삶이 산만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가문과 지식과 명예 등 자신을 산만하게 만드는 주변을 정리하면서 분명한 쫓대를 정하고 그곳을 향하여 달려갔다. 목적이 있어야 동기부여가 되고, 그래야 행동하게 된다. 당신이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잠16:18~25)

우리가 고민할 것은 무엇인가?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눅23:28).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향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는 ‘너희의 신앙상태, 너희의 영적상태를 고민하고 울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신앙상태, 영적상태는 안전합니까? 우리의 신앙상태, 영적상태를 점검하는 바로미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교만한가, 겸손한가’입니다. 섰다고 자랑하고 교만한 자는 다들 넘어지기 때문입니다.

에덴동산에 뱀이란 놈이 하와에게 주입한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창3:5),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교만을 심어준 것입니다.

이 뱀이란 놈은 본시 마귀요, 사단입니다(계20:2). 그놈은 교만을 부리다 하늘에서 내쫓김을 당한 자입니다. 그는 본시 루시엘이라는 천사장이었는데, 스스로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교만을 떨다가 그것이 발각되어 흑암, 곧 음부에 갇히게 된 자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엮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네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집회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사14:12~14).

버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렇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입니다(잠16:18). 추수할 때 알곡들 사이에 뻗뻗하게 서 있는 것이 있지요? 다 가라지입니다. 농부가 그걸 어떻게 하니까? 뻗뻗하게 서 있는 것만 골라 다 뽑아 불살라버립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그랬습니다. 사울은 처음에는 겸손한 자였습니다. 자신은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한 자라고 겸손했습니다(삼상9:21). 그러나 그가 왕이 된 후로 달라졌습니다. 점차 교만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마침내 사무엘상 10장에 보면 제사장이 늦었다는 이유로 자기가 제사를 드리는 월권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버리고 다윗으로 왕을 삼게 됩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삼상15:17). 다니엘서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치세의 확장으로 인해 자기의 업적과 권세를 자랑하고 스스로 교만하여질 때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듣게 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한 꿈을 꾸었는데, 한 나무가 자라 하늘에 닿았고, 그 잎사귀가 아름답고 그 열매가 많아서 거기에 깃든 동식물이 많았는데, 한 순찰자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 나무를 그루터기만 남겨 두

고 베어 버렸고, 그는 짐승의 마음을 받아 일곱 때를 지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느부갓네살에게 임할 일로, 왕이 사람에게 쫓겨나서 짐승처럼 일곱 해를 지내게 된다고 다니엘이 해몽했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은 왕에게 회개할 것을 촉구했으나 왕의 교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나 왕이 말하여 가로되 이 큰 바벨론은 내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을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단4:30). 하나님은 교만한 느부갓네살에게 그 꿈이 응하게 하셔서 그는 광야에서 소처럼 풀을 뜯고 몸이 이슬에 젖으며, 머리털이 독수리 털 같고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되어 짐승처럼 7년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기한이 차매 그루터기를 남겨주신 하나님이 다시 그에게 총명을 주사 그는 예전의 영광을 찾게 됩니다. 이제 그에게서 오만방자했던 지난날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존경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므로 무릇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니라”(단4:37).

여러분, 돈 좀 있고, 좀 배우고, 권력이 좀 생기면 눈을 아래로 깔지요? 그거 안 좋습니다. 교만한 겁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주 가관입니다. 교만이 차고 넘칩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이레에 두 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십일조를 드리나이다”(눅

18:11~12).

바리새인들은 아예 세리와 따로 서서 기도하며 ‘자신들은 차원이 다른 신앙’임을 강조합니다. 금식도 잘하고, 십일조도 잘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교만을 떨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받은 것인데 마치 자기가 잘라서 높아지고 많아진 것처럼 구는 자들이 있습니다. 또 좀 살게 되면 ‘이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자가 많아서 나와 안 맞는다.’는 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기쁘게 보실까요?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런 자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봅시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눅18:14).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람쥐 쳇바퀴 돌리듯 광야에서 돌리셨는지 압니까? “네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네 우양이 번성하며 네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신8:12~14). 너희가 누

리는 풍족함과 편안함이 너희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불뱀과 전갈이 있는 광야에서 건지시고, 건조한 땅을 무사히 지나게 하셨으며, 굳은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셨고, 광야에서 만나를 내리게 하신 하나님으로 인하였음을 기억하여 절대 교만하지 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몰아내신 것입니다.

대접 받으려면 먼저 대접하라

여러분, 겸손의 모범을 보이신 가장 대표적인 분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죄인들을 사랑하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빌2:5~8).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마20:28). 그래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입니다(요13:3~5). 하나님의 아들도 겸손하실진대 피조물이 교만을 떠나는 것이 우습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벧전5:5). 교만이 패망의 앞잡이라면,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요(잠15:33), 교만한 자에게는 욕이 오나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잠11:2), 교만한 자는 땅에서 엎드려 지나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불드시고(시147:6), 하나님은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하셔서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사57:15),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고(잠3:34),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어주십니다(시10:17). 그러니 우리 거만하지 말고, 교만 떨지 말고 겸손합시다. 여러분, 저는 교만의 끝이 무엇인지 잘 압니다. 교만이 불러올 화가 무엇인지 정말 잘 압니다. 그래서 절대로 교만하지 않기로 작심하고, 행여 끝은 목이 될까 봐 때때로 저를 돌아보며 책망합니다. 나를 돌아보세요. 지금 내가 고민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는 자는 절대 교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여 성령에 사로잡힌 자는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의 괴수요’(딤후1:15) 하며 낮아집니다.

물은 낮은 곳에 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언제나 낮은 곳에 임합니다. 그러니 겸손하게 낮아져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는 자가 됩시다. “거만한 자는 지혜를 구하여도 얻지 못 하거니와 명철한 자는 지식 얻기가 쉬우니라”(잠14:6). 할렐루야!



총회장 이초석 목사

:: 객원컬럼 ::

:: 아름다운 인생 ::

꾸준함이 결국은 이긴다!

2018년 노벨물리학상은 캐나다 워털루대학교의 도나 스트리클랜드 교수에게 돌아갔다. 여성으로서는 무려 55년 만에 역대 세 번째 노벨물리학상 수상의 영예를 안은 것이었다. 그녀가 연구한 CPA(Chirped Pulse Amplification) 기술로 이제 레이저는 ‘라식수술’과 같은 안과 수술, 휴대폰 부품의 정밀가공 등 학계와 의료계, 기술공업계 전반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그녀는 ‘무엇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는가?’하는 질문에 세 가지 이유를 들었다. ‘생각의 전환, 열정, 그리고 꾸준함’이 그것이다.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그녀의 ‘꾸준함’이다. 그녀가 CPA 기술을 처음 창안해낸 것은 대학원 1학년생이던 1985년의 일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난해 노벨물리학상을 받았으니 관련 연구를 무려 33년 동안 계속한 셈이다. 끝도 없이 반복되는 연구와 연구, 그리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속에서도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다. 한 분야에서 33년을... 정말 대단하지 않은가!

그렇다. 꾸준함이 재능을 이긴다! 기도원 입구에서 사무실을 지나다 보면 기다란 깨밭이 있다. 그런데 한군데 깎아들은 도무지 열매를 맺을 기미가 없다. 바로 방범등 아래에 자리한 깎아들이었다. 사시사철 24시간 빛이 드는 곳에 자란 깎아들인지라 다른 이파리보다 성장도 빠르고, 크기도 남달랐지만 열매가 없다. 열매를 거두려면 빛과 함께 어둠도 있어야 한

다. 어둠이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를 주기 때문이다. 태풍이 바다를 뒤집어엎어 이를 정화시키고, 어둠이 동식물에게는 휴식과 재충전의 기회로 작용하듯이, 우리 인생에 마주하는 거센 풍랑 또한 성장과 열매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는 믿는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의지다. 계속 나아가고자 하는 의지, 계속 성장하고자 하는 의지,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의 성품에 이르고 말리라, 내게 맡기신 모든 사명을 감당하리라!’ 하는 의지로 한 걸음 내딛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것이다.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외적인 화려함은 없었으되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마지막까지 신앙의 의리를 지켰다. 이로써 하나님께 인정받았다. 우리 예수중심교단 또한 마찬가지다. 비록 크다 할 순 없지만 남들이 고개를 가웃거리고 비아냥거릴 때에도 우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를 쉬지 않았다. 통일 그 이후의 미래를 대망(大望)해왔다.

그 기도와 수고의 열매를 언제 거두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지금껏 그래왔듯이, 주께서 명령하신 오직 한 길을 걸으셨던 총회장님과 함께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사수하다보면 우리 또한 주께서 예비하신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되리라! 허울뿐인 널따란 앞사귀를 바랄 것인가! 아니다. 우리는 오직 열매를 바랄 것이다.

신현명 목사

:: 성경에세이 ::

누릴 줄도 알아야지!

여보게!
오래전에 다이제스트라는 잡지에 게재된 글이라네.
미국에 사는 한 여자가 암 말기로 죽을 날을 받아두고는 딸 셋을 불렀다네. 그녀는 딸들에게 자신의 옷장을 열어보라고 했네. 옷장을 열자 새 옷이 가득 걸려 있었지. 딸들은 놀라며 “엄마, 이렇게 좋은 옷이 많았어요? 그런데 왜 안 입고 맨날 똑같은 옷만 입고 사셨어요?”라고 했다. 그러자 그녀가 말했다. “내가 잘못 살았단다. 아빠가 때마다 좋은 옷을 많이 사줬지. 나는 늘 나중에 입지 하며 아끼다가 평생 입지 못했단다. 이렇게 갈 날을 받고 보니 누리지 못한 것이 후회되는구나. 부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마라.” 맞는 말 아닌가?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네. “내가 해 아래서 한가지 폐단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에게 중한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요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능히 누리게 하심을 얻지 못하였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나니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전 6:1~2).

언젠가 우리 교인이 입원을 했다고 해서

병문안을 간 적이 있네. 그런데 가보니 6인실 한쪽 구석에 누워 있지 뭔가. 그 사람 재력이 아주 뽕뽕하거든. 그래서 내가 ‘그 돈 다 어디에 쓰려고 그러나. 형편이 안 된다면 모를까 좀 쓰며 누리고 살아라.’고 얘기하고는 당장 1인실로 옮기라고 했네.

여보게!
누릴 줄 모르는 것도 죄야. 가장 어리석은 자가 바로 자신에게 인색한 자거든. 나에게 투자하지 않는 자가 가장 어리석은 자라네. 그러니 좀 누리고 살게나. 과하게 사치하고 허랑방탕 하라는 게 아니라 분수껏 누리고 살라는 거지. 내 처지 안에서 자신에게 투자하라는 걸세. 건강을 위해서 좋은 음식도 먹고, 운동도 좀 하고, 취미생활도 하라는 걸세. 없는 돈에 빚 내가면서 하라는 게 아니니 오해는 말게.

누릴 줄 아는 것도 복이야. 어떤 사람은 죽어라 일하고, 아끼느라 못 먹고 잠도 못 자다가 나중에 병들어서 요양원에 누워 있는 사람이 있네. 그건 아니라고 보네. 누릴 줄 아는 복이 있길 바라네.

朋友

朋友

朋友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뒤로하고 임했던 수련회와 집회 3주간 동안 사업에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생겨 어려움을 겪었다. 그렇다고 집회를 뒤로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간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었다. 그래서 문제를 오직 주님께 맡기고 수련회와 집회에 집중했다. 불안한 생각이 들 때마다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 보게 하지 않을 거라고 되뇌었다.

집회 마지막 날, 갈등한 내 마음이라도 반영하듯 감기몸살이 심하게 와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봉사하러 왔다가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못하는 상황이 되니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장비 철수하기 위해 대성전으로 올라가는 중에 권천국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분께서 저를 붙잡고 흔들며 놀려 넘치는 축복기도를 해주셨다.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아시는 것 같아서 감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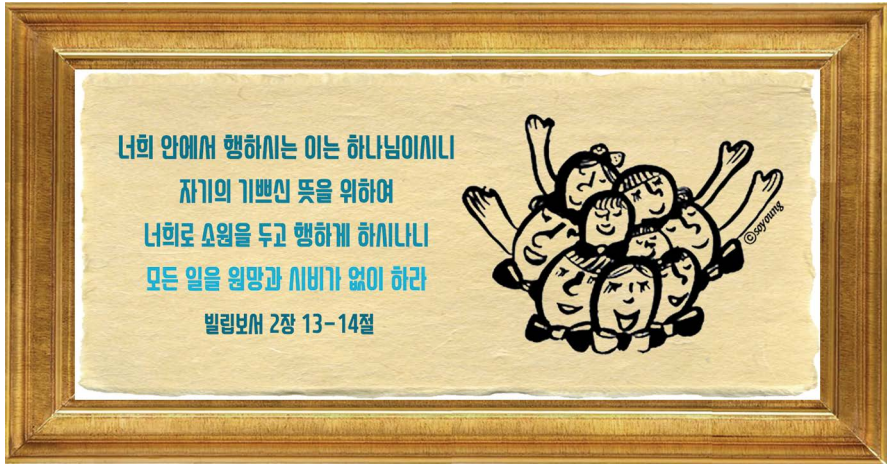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 하나님께서 권천

국 목사님을 통해 축복해주신 것들을 이루어주실 줄 믿고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기대했다. 그런데 현실은 너무나도 달랐다. 해결되기는커녕 더 어려운 상황 속에 빠져들었다.

‘왜 그럴까, 왜 이런 일이 생길까’ 생각을 하다 ‘원인 없는 문제가 없다. 원인을 알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목사님의 말씀을 떠올렸다. 그래서 혹시 내가 놓치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점검하던 중 사이트에 오류가 발생한 것을 발견했다. 늘 점검하지 않는 것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하신 목사님의 말씀을 실생활에 적용하지 못한 탓이었다. 이것 덕분에 다양한 업무를 연결할 수 있는 새로운 루트까지 발견하게 되어 국가 공공기관과 연결되었고, 모든 어려운 상황이 해결되기 시작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가 절대 손해 보게 하지 않으신다.

이은성 성도



:: 소망의 언덕 ::

간절한 기도

중고등부에서는 수련회 이후에 3주간 학생들이 준비하는 헌신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설교 전에 ‘내가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짧은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는데, 자원하는 학생들로 진행됩니다. 지난 주에는 중학교 1, 2학년 학생들이 준비한 헌신예배였는데, 한 학생의 간증이 은혜가 되어 그 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박세희입니다. 저는 이번 하계수련회 때 같이 갈 친구 4명을 놓고 기도해왔습니다. 다행히 기도한 친구 4명이 모두 수련회에 갈 수 있게 되어 기쁜 마음으로 수련회에 같이 갈 준비도 하고, 수련회 가기 전날 저녁에는 친구들과 함께 집을 싸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수련회 가기 전날 잠을 자려는데, 갑자기 온몸에 열이 나기 시작하면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순간! ‘내일도 이렇게 아프면 수련회 못 가는 거 아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열제를 먹어보았는데도 열은 정말 1도도 내려가지 않자 엄마는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하셨습니다. 몸은 축 처지고 머리도 멍했지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면 이 친구들 수련회 데려갈 수 없어요. 이 친구들을 꼭 수련회에 데려가서 같이 은혜 받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함께 다니고 싶어요.’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잠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 수련회에 가기 위해 일어났을 때 놀랍게 하나도 아프지 않고 오히려 몸이 개운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해주셔서 건강하게 전도한 친구들을 데리고 수련회에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시고 치료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줍음 많은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이 또 박포박 차분하게 하나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대견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 큰 감동이 되었던 것은 어린 학생이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친구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 학생에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 민족 전체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에 동참합시다.

이현승 전도사

부르심의 소망

1950년 한국전쟁 당시 갑작스런 북한군의 공격에 미처 준비하지 못한 남한군은 정신없이 후퇴했습니다. 급기야 부산까지 밀려 내려갔는데, 이때 북한군은 서울을 점령하고 3일 동안 축제를 즐기며 더 남하하지 않았습니다. 그 덕분에 남한군은 낙동강을 거점으로 방어선을 구축하게 되었고, 미군을 중심으로 한 연합군이 이곳을 지키기 위해 한 달 가량 혈투를 벌였습니다. 이곳에서 많은 사상자가 났지만, 9월 까지 버텨으로써 인천상륙작전의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북한군이 그대로 남하했다면 쉽게 승리했을 텐데, 왜 북한군은 3일이나 서울에 머물렀을까요? 경상남도를 제외하고 남한의 모든 지역이 초토화되었는데, 왜 경상남도만 무사했을까요?

이것은 한국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1938년 6월 부산해운대교회에서 제 41차 경남노회가 열렸는데, 공식적으로 신사참배 반대를 결의한 유일한 노회였습니다. 신사참배 반대에 앞장섰던 주기철 목사님,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손양원 목사님이 경남노회 출신입니다. 해방이후에 이 목사님들을 중심으로 신사참배 참회운동을 전개했지만 대부분의 교회는 이것마저도 외면했고 부산의 한 교회에서만 회개집회를 열었습니다.

비록 적은 숫자였지만, 이들의 결의와 회개기도를 받으신 하나님께서는 맹렬한 전

쟁 중에서도 경남지역을 보호하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남한 전체를 수복할 수 있도록, 부산을 인천상륙작전의 교두보로 활용하셨습니다. 맥아더 장군은 인천상륙작전의 성공 후,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전지전능, 무소불위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은 지금 여기에서 또 한 번 그 거룩한 기적을 행하셨나이다. 하나님의 은총에 다만 감사, 감사가 있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가나안 땅, 즉 강대국 사이에 위치하게 하셨습니다. 이유는 오직 나를 의지하지 않고는, 내가 지켜주지 않고는 너희가 살지 못하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했을 때마다 주변 국가들에게 무참히 짓밟혔고, 회개하고 돌아섰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어떤가요? 한국도 일본, 러시아, 중국 등 강대국에 둘러 쌓여있습니다. 단일국가로 이들을 상대하기에는 지정학적으로 최악의 위치에 있습니다. 마치 우리 민족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이는 살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전해드린 한국전쟁의 역사를 보면, 일제 식민지 시대 때 신사참배로 인해 망하기 직전까지 갔던 나라였습니다. 혹독한

고문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자 했던 이들의 목숨을 건 결의와 회개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거룩한 기적으로 이 나라를 살리신 것입니다. 이방민족을 자기 백성처럼 대우하신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였습니다.

현재 이 나라는 경제와 안보에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생각해봐야 할 때입니다.

우리 예수중심교단의 기도는 우상숭배에 맞서 싸운 총회장 이초석 목사님과 어머니들의 희생으로 하나님께 상달되는 힘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국가와 민족을 위한 중보기도자가 되어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향해야 할 이유입니다. 장성한 자식이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듯이, 작정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10월 1일,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서 다시 한 번 이 땅에 거룩한 기적을 행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진노 중이라도 합당한 자비를 베푸실 수 있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자, 그가 바로 중보기도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회장 목사님을 따라 국가와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자가 되어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안전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박영신 성도
rubyday0@naver.com

거울 좀 보세요!

몇 주전 주일, 총회장 목사님께서는 단위에 큰 거울을 성도들에게 보이셨다. 그러시면서 내 육체의 본 모습, 내 영의 본 모습, 내 혼의 본 모습을 보기 위해서는 거울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다. 직접 거울을 들고 나와 보여주신 목사님의 행동을 바라보며 한 책이 떠올랐다. 그것은 바로 오쿠다 히데오의 소설 ‘공중그네’이다.

이 소설은 정신과의사인 이라부가 치료하는 5명의 환자들에 관한 에피소드이다. 그 환자들은 조직폭력배의 중간보스, 공중그네 곡예사, 정신과의사, 3루수 야구선수, 여류작가인데, 그중 나는 그 어떤 환자보다 공중그네 곡예사 ‘고헤이’의 에피소드가 뇌리에 많이 박혀있다.

이 서커스단원 ‘고헤이’는 파트너와 함께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 유명하고 잘나가는 천재 곡예사였다. 서로를 의지하며 호흡과 신뢰가 잘 맞아야 하는 이 서커스에서 어느 날부터인가 그는 계속해서 실수를 한다. 연습에 연습을 해도 동료와 호흡이 맞지 않아 베테랑인 그는 자신의 파트너인 젊은 곡예사가 공중에서 일부러 실수를 한다고 판단한다. 그 후, 그는 문제를 모두 젊은 곡예사에게 돌리고 사람을 바꾼다. 그러나 파트너를 바꿔도 그는 실수를 하게 되고, 사람을 바꾸고 또 바꾼다. 그러다 우연찮게 자신의 공중 연기를 찍은 그동안의 모든 영상을 보게 된다. 과거의 영상과 최근 영상까지 모든 비디오를 본 ‘고헤이’는 모든 잘못이 자신에게 있음을 알게 된다. 그러면서 남 탓을 했던 자신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돌이킨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고 남의 티단 본다(마7:3). 그러나 우리에게는 내 영·혼·육을 비추는 거울 ‘성경’이 있다. 천재 공중곡예사 ‘고헤이’의 실수를 촬영해준 비디오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담긴 성경에 비추어 남 탓하지 말고 나를 점검하도록 하자.

송현혜 성도

40일간 작정기도회 8월 22일(목) - 9월 30일(월)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기도성회

:: 나도 건강할 수 있다 ::

약식동원- 여름철 과일 주스

여름철 카페에서 시원한 과일주스를 마시러 들어가면 과거에 비해서 너무 많은 종류에 놀라고, 무엇을 마셔야 할지 고민하는 자신을 종종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중에서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바나나는 요즘 과일주스로 많이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바나나주스는 자극적이지 않고 순하면서도 살짝 단맛으로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맛입니다. 바나나의 성질은 달고, 서늘하고 독성이 없습니다. 폐와 위장에 도달한다고 하며, 열을 낮추고 폐를 촉촉하게 해주고, 대변을 잘 통하게 하면서 해독효능이 있습니다. 바나나는 위궤양 보호작용이 있고, 펠라토닌 성분이 마음을 편안하고 기분 좋게 하여 심적인 고통을 경감시켜주기에 우울증을 치료하는 보조식품으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바나나 껍질은 피부가 가려운 증상에 효과가 있고, 손발이 갈라진 데 바나나 껍질로 문질러도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여름철 갈증을 해소시켜 주고, 폐가

건조해서 기침이 오래갈 때, 변비나 치질이 있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파인애플주스는 새콤하면서도 달달한 맛으로 시큼한 맛이 웬지 건강에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과일입니다. 상쾌한 신맛과 단맛으로 비타민C가 풍부하며, 육류의 소화를 도와주기에 육류와 함께 먹으면 도움이 됩니다. 한의학적으로 위장과 신장의 경락에 영향을 주며, 성질은 평이하며 몸에 진액을 보충하여 갈증을 없애주고, 기운을 나게 하며, 육류소화에 도움이 되고 술 해독에 도움이 됩니다.

망고주스는 한때 망고를 메인으로 하는 카페가 생길 정도로 한참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기도 하였는데, 망고는 성질이 달고 약간 시고 평이하며 약간은 서늘합니다. 폐, 비위에 영향을 주며 소화기능을 튼튼하게 하고 구토를 멎게 하며 기침을 그치고 몸에 진액을 공급시킵니다. 밥맛이 없고 기운이 없거나 기침 후유증에 좋습니다.

우리 몸에 진액이라는 것은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폐에 수분이 부족하여 마른 기침이 날 때 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는 건조한 폐에 수분이 충분히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폐에 수분을 공급해주는 과일이나 약초들이 그 부분에 부족한 수분을 공급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증이 심하게 나는데 시원한 물만으로 해결되지 않을 때 시원한 과일주스가 부족한 10%를 해결해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과일은 다양한 신체의 진액을 공급해주며 오장육부의 진액을 충분히 공급해주어 건강을 유지시키고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특정 과일이 더 먹고 싶고 먹으면 몸이 편하고 기분이 좋은 것은, 그 과일이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부족한 진액을 적절하게 채워주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고 먹고 싶은 것을 맛있게 먹고 즐겁게 사시는 한 주간 되시길 바랍니다.

Dr. 설재현 집사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름은 산성 문빛장 같은니라
(잠언 18장 19절)

다투지 말라
다름의 끝은 공멸이다